

'트레일 빌리지'로 새롭게 브랜딩 과학기술 활용 지역 문제 해결

장수군, 행안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들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로컬브랜딩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장수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정안산, 팔공산 등이 위치해 있는 장수를 주변을 생활권으로 한 '트레일 빌리지' 사업계획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전국 10개 지자체를 뽑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



장수 트레일빌리지

다.

군은 최근 장수군에서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트레일레이스'를 확장해 주기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청년 트레일 빌리지 테마거리와 트레일빌리지 광장, 등이 갖춰진 '트레일 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수 스마트러져 체험촌과

스마트로드를 트레일 힐링스테이션으로 활용하고, 장수를 생활권 내에 조성 예정인 어울림센터와 현재 공모 진행 중인 청년복합공간과 연계해 청년들이 주체가 돼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트레일 빌리지'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장수군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사업으로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역 농식품 과학적 검증으로 맞춤형 건강식단 제공

진안군은 고령인구 주민 식단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하려는 부처 협업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연구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군은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 인구 구성에 있어 65세 이상 인구가 79.64%에 달하고 있으며 해당 세대의 식단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맞춤형 건강식단을 개발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업공모에 신청해 올해 선정됐으며 진안을 하가마을에서 생산되는 '올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식단을 개발했다.

올무는 단백질함량이 높은 곡물로 100g 기준 15g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영양식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외에도 당뇨개선, 다이어트, 항암, 혈관건강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과학적 검증을 통해 영양소 분석과 인체 영향을 분석해 고령 연령대에 맞는 식단으로 올무쌀, 올무새싹, 올무차, 올무죽 등을 개발했다.

더불어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0회에 걸쳐 올무를 활용한 건강 치유식단 공급에 따른 마을 주민의 신체 변화를 건강검진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으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식단이 농촌 지역 고령층의 만성기저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구강보건의 날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진안군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8일에는 올바른 칫솔질 생활 습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생,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안문화의 집에서 '치카치가 총치깨비 저리 가!'라는 제목으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했다.

또한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구강보건 기간으로 정하고, 민6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금니에 무료로 치아 홈메우기를 치료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 구강관리를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통해 구강 보건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체험 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9일에는 진안장남을 맞이해 가두캠페인을 실시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리플렛 및 구강 위생용품 등을 배부해 지역 주민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홍보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실시

전라북도도와 진안군은 관내 어족자원을 육성하고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배스, 블루길 등 외래 어종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매사업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이며 어업활동 중에 포획한 외래어종을 외래어종의 산란기인 3~6월 집중 수매하고 있다.

토산어종의 알 및 치어를 다치는 대로 먹어치워 관내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 시키고 어족자원의 다양성을 해치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18년부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84톤의 외래어종을 수매했고, 23년도 목표량은 20톤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본회의를 휴회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를 통해 주요사업장

13개소(장수 3, 산서 2, 번암 2, 장계 2, 천천 1, 계남 2, 계북 1)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구축 완료

장수군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형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구축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집시 설 부족 등으로 방치돼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도움센터 7개소, 영농폐기물 도움센터 5개소, 스마트 클린하우스 78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IoT 기술을 이용한 재활용품 수거해 적재량 관리와 GIS를 기반으로 한 영농폐기물 배출, 수거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도 개발했다.

장수군은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에서 '장수군 스마트 폐기물 수거' 앱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를 신청하면 수거 차량이 현장에 방문해 처리하는 서비스와 재활용품을 폐기물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촌형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운영에 군민들이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영농 및 생활폐기물 효율적으로 배출, 수거해 환경문제와 자원 낭비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천재지변 영농손실은 정부가 100% 보상해야"

무주군의회,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올해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무주군에서 많은 농작물이 냉해를 입은 가운데 무주군의회가 피해농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냉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주민, 농민단체와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비롯한 냉해 피해보전 제도화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건의문을 통해 무주군의회는 "4월에 두 차례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피해규모가 1,167농가 845ha로 규모가 매우 크다"며 "복숭아, 인삼, 포도, 블루베리 등은 이상저온으로 꽃



무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눈피해와 새순고사로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무주군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은 농민 잘못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되고 있다.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주는 한계가 있다"며 생계비와 자재비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피해율을 하향조정해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 과수농가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 100% 정부보상 및 근본 대책 마련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 보상을 개선 및 작목별 특성 반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사과, 포도의 동상해 피해보장을 주 계약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오피스 행정사무원 양성교육 개강

무주군은 8일 오피스 행정사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하는 교육은 관내 여성들의 직업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7월 19일까지 무주여성센터 3층 전산교육실에서 직업의식 교육을 비롯한 컴퓨터 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등 기업 및 기관 등지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 중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 경험 후 취업에 도전하는 여성,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 여성 등 15명의 수강생이 참여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